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고린도전서 2:1-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 그 분이 설교하게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만약 우리가 바울을 청빙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그 분을 청빙했을까요? 그 분은 우리 공동체에 알맞은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분의 설교듣기를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믿음, 즉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이는 것에 뛰어나나요,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에 뛰어나나요?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우리 마음 속 소원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자들에게 의해서만 신성한 능력으로 설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로부터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설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설교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선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시도하려 했었을까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데 열심을 냈을까요? 고린도에선 설교자들 사이에서 인기 경쟁으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보다 설교자들을 비판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은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그 지점에 달려있거나 그것으로 인해 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한 구원의 확신은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이것에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힌 못만큼 확실합니다. 성도들의 구성, 인종적 다양성 또는 그들의 교육 범위로 인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목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선포하라. 그 증거의 내용은 하나님 그 분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 계시의 중심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로 끝났다는 그 분 이야기에 관한 한 가지 확실성; 이 사실에 따라 다른 모든 세부 사항, 사건 및 만남들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완성한 것이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거창한 웅변으로 그것을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지혜로 전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순된 일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복음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 인류에 관한 본질 그리고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 이 구속 사건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다른 모든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구세주를 그곳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어떤 유창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위해 누군가는 그 짓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 또는 누군가의 짓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표현인 동시에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과 형벌과 진노를 영원히 우리 자신 안에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걸으신 거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토록 증오 받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우리들은 자기를 모두 비우신 이타적인 그 분 사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비워 겸손히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소망이자 은혜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3:16, 요한복음 10:11, 요한복음 15:13). 십자가는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 울려 퍼지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적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뛰어난 언변이나 지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엔 희망이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설교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이 설교자의 탁월한 언변과 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의 산물로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깨끗케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겐 오직 한 가지 길 밖엔 없습니다. 십자가.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의 단 한 가지 표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